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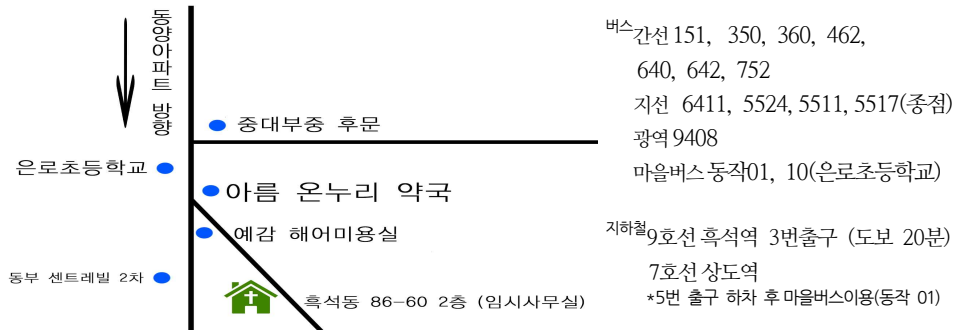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주일 오전 11:0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저녁기도회	월-목요일 저녁 8:0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1: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8:00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1:00
금 요 기도회	금요일 저녁 8:30	청 소 년 부	오후 1:00	마리아회	오후 1: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청 년 부	오후 1:00	드보라회	오후 1:00
	*월삭새벽예배 6:00			에스더회	오후 1:00
셀 가족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파 송 선 교 사	강성규 (러시아)
			전임전도사 김 진 만	협 력 선 교 사	양병순 (카자흐스탄)
			전임전도사 권 인 혁		이금주 (M국)
			협력전도사 오 호 남	국 내 선 교 사	오인숙
				관 리 장 로	손석규
장	로	유 신 웅 (집사장)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김 대 희			(2호) 세종 선한교회
		박 희 태			신원섭 목사
		조 윤 익			
		한 배 선			

선한교회 사무실 오시는 방법



06987 서울 동작구 서달로 110-10 2층 (흑석동 86-6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 5:16)

Walk By The Spirit

실 천 사 항 선교사의 삶 제자삼기(1인) 성경강론(1장)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삶 의 방 식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빌 4:1-7)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암송구절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6:7~8)

기 독 교 선한교회
한국침례회

담임목사 임 춘 배

오전 예배	오전 11:0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기원	인도자		
찬양과경배	40장 (통일찬송가 43장)		
교독문	교독문 33번(시편 72편)		
찬양과경배	259장 (통일찬송가 193장)		
예배기도	박희태 장로		
찬양	드림성가대		
말씀봉독	갈라디아서 6:11~18		
설교	십자가를 자랑하라 (임춘배 목사)		
헌금드림	방성자 백미경 서진화		
환영및광고	인도자		
파송의노래	주를 위한 이곳에		
축도	임춘배 목사		
송영	드림성가대		
성도의교제	다함께		

수요일 예배	오후 8:00		예배장소 : 교회 사무실	인도자 : 임춘배 목사
말씀봉독	유언 노래 (32장) 임춘배 목사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	-----------------------------

- 성전건축기도**
조속한 준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임목사동정**
제107차 기독교한국침례회 정기총회 참석
일시 : 9월 18일(월)~21일(목) 장소 : 평창
- 주의뜰교회 창립예배**
일시 : 9월 23일(토) 11시
장소 : 화성시 동탄대로 시범길 257번지 참조은상가 4층 주의뜰교회 (담임목사 김대열)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바랍니다.
- 매일성경강론**
매일 저녁 8시 성경 강론과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주보에 성경 강론을 위한 참고지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사용과 참여를 바랍니다. (월~금 주5일)
- 정오기도회**
매일 점심(12시30분)에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전건축을 위한 기도문을 이용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체크하고 계시는 "기도문 읽기표"를 입당예배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준비안내및정리**
각 셀별로 돌아가면서 봉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예배준비 및 안내가 있고 청소 및 정리는 2시 30분 부터입니다.
오늘은 **흑석셀**에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안양셀**입니다.
(정리 후에는 식당문을 잘 닫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성경강론 범위						
9/17	9/18	9/19	9/20	9/21	9/22	9/23
	30장	신명기 31장	신명기 32장	신명기 33장	신명기 34장	
※매일 저녁 기도회 : 월~목 저녁 8시(교회 사무실), 금요일 8시 30분(서울남부교회 4층)						
※매주 성경통독 내용과 암송구절은 주보를 참조.						

한주간의 기도제목	예배처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기쁨과 감사로 흘러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교회 건축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기를 담임목사님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지혜와 능력을 날로 더하시기를
--------------	--

가정예배

“일생의 가장 귀한 일”

찬송 : ‘내게 있는 모든 것을’ 50장(통 71)

본문 : 출애굽기 25장 1~9절

말씀 :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처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거하시는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베푸시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광야에서 처음으로 짓는 하나님의 성전인 성막 건축을 통해 성전에 담긴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전의 역사(役事·건물을 짓는 일)는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일입니다. 본문 8절 반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성전인 성막을 건축하라고 명하실 때 “나를 위해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성전을 짓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본문 8절에는 성소를 짓는 주체가 ‘그들’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세상과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할 때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켜서 지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마다 진행하고 있는 성전의 모든 역사 역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또 성전을 짓기 위해 자원하는 예물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본문 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친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예물을 받아 지으라고 하십니다. 예물을 받되 특별히 자원하는 예물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귀중한 일임을 알아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성전의 역사를 위해 다양한 예물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4절에는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베실과 염소 털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5~6절에는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 향품이 등장합니다. 7절에는 호마노와 보석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금과 은과 놋을 준비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모두 성전 건축에 쓰기 위함이었습니

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짓는 일은 거룩한 일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기도 합니다. 이 일에 있어서 성도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출처 :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은혜의 말씀

제목

십자가를 자랑하라 (갈6:11-18)

서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끝맺는 부분입니다.

본론

1. 그리스도인의 자랑

- (1)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한 일을 자랑거리고 삼아서는 안 된다.
- (2) 그리스도인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한다.
- (3)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온 십자가의 흔적이 있음을 자랑해야 한다.

2. 교훈

- (1)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자랑하며 살자.
- (2) 십자가의 흔적이 내게서 발견되게 하자.
- (3) 주를 위해 세상에 대하여 자신을 못 박아야 한다.

결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예 배 기 도	박희태 장로	한배선 장로
헌 금 위 원	방성자 백미경 서진화	김현석 김희상 김석범
안 내	흑석셀	안양셀

매일 성경 강독		마지막 권면		날짜 : 9월 18	
찬양		주여 날 불드사 (찬송가 433장/통일 찬송가 490장)			
통독		신명기 30장			
본문 내용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앞장에서 보듯이 미리 규정해놓았던 저주를 받아 타국의 포로가 되었을 때에라도 만약 다시 이스라엘이 전심으로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이스라엘의 옛 지위를 회복시킬 것이며, 율법 책에 기록된 바 모든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후반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의 준수가 혹독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마음만 있으면 지킬 수 있는 것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이스라엘백성 각자가 율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해야만 하는 현실 앞에서 그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면서 순종의 자세를 가다듬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생각해보기					
1		회개에 따르는 복 (1)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철저히 징계하시면서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와 순종하는 자에게 다시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심 (2) 하나님께 회개할 때 반드시 갖추어야할 조건(1~2절): ①자기 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함 ②이전의 죄악된 모습을 완전히 청산하고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 (3) 입술로 죄를 회개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생활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의 자세가 아니다.			
2		율법의 명료성 (1) 하나님의 율법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2) 하나님의 율법은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어 행할 수 있다. (3) 하나님의 율법을 분명하고 단순하다: 지키면 생명과 복, 지키지 않으면 사망과 화 (4) 하나님의 율법이 어렵고 지키기 힘든 이유는 내 마음이 완악하고 하나님 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악인들은 두려워서 순종하고 선인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한다!”			
핵심 단어		여호와께로 돌아와...순종하면 - 참된 회개가 어떠한 것인지를 일깨워 주고 있는 구절이다. 즉 회개란 단순히 자기의 잘못을 후회하거나 뉘우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란 (1) 먼저 자기의 잘못을 겸손히 깨닫고 뉘우치는 것이다. (2) 다음으로 과감히 그 최악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3)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좇아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셀 모임 나눔지		“만민을 위한 구원 잔치”
찬양과 기도	모든 민족에게 / 인애하신 구세주여(279장/통 337장)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로마에 있는 시스티나 대성당(Cappella Sistina)은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화가들의 화려한 프레스코 벽화가 가득 그려져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천장 한복판에는 1508년 미켈란젤로가 교황 율리오 2세(Julius II)에게 의뢰받아 그린 천지창조의 9개 이야기가 채워져 있습니다. 교황 클레멘스 7세(Clemens VII)는 미켈란젤로에게 성당의 바로 정면 벽에 ‘최후의 심판’을 제작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환갑을 바라보는 그가 7년간 약 200제곱미터의 벽면에 제작한 그림에는 부활하여 각각 천국과 지옥으로 끌려가는 391명의 인물상이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 화난 사람, 욕심 많은 사람의 표정을 가지고 있는 지옥에 속한 인물들은 죽은 자를 지옥으로 나르는 뱃사공에 의해 흠뻑 두들겨 맞으면서 비참하게 쫓겨 다니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그중에는 추기경과 장군들도 있습니다. 가장 특이한 장면은 정면의 제단, 즉 교황이 앉는 자리 바로 뒤에 지옥으로 들어가는 동굴의 입구가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림이 완성된 당시 교황 바오로3세(Paulus III)는 심판자 예수님 바로 앞에 자신이 심판자처럼 자리할 것으로 착각했지만, 그 자신도 돌아서기만 하면 언제든지 지옥으로 향하는 동굴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심판자인 것처럼 사나요, 심판받을 수 있는 죄인으로 사나요? 심판받을 수 있는 죄인임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말씀 나누기	이사야 25:1~12	
묵상포인트	하나님은 그분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이의 위대한 구원자요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겸손히 주님을 경외하는 빈궁한 자, 환난당한 가난한 자를 위해 일하시며 폭풍과 같고 폭양과 같은 포학자의 기세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영은, 이 땅의 권세를 심판하심으로 모든 나라가 경고를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신 후 만민을 초청해 연회를 베푸시며 죽음과 슬픔과 수치를 제해 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는 누구나 그분이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을 누릴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하나님이 견고한 성읍을 황폐케 하시니 포학한 나라가 어떻게 변화되나요?(2~ 3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지키시나요?(4~5절)	
적용하기	폭풍 같은 포학자의 기세에서 보호받은 경험이 있나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이 내게 어떤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나누어 보세요.	
함께 기도하기	저희를 힘들게 하는 포학자도 주님의 주권 아래 있으니, 환경에 매이지 않고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담대하게 하소서. 만민을 위해 하나님이 베푸실 잔치를 소망하며,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나의 기도문		
기도 (중보기도)		

매일 성경 강독		모세의 죽음		날짜 : 9월 22일	
찬양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송가 492장/통일 찬송가 544장)			
통독		신명기 34장			
본문 내용		전날 므리마 물 사건으로 실수한 책임을 물어, 모세는 끝내 약속의 땅을 밟지도 못하고 다만 느보 산상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죽은 사건이 보도된다. 그리고 혹시 모세가 다만 하나님의종이었던 것으 생각하고 그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행한 기적과 지혜만을 보고 그를 섬길지도 모를 어리석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세의 묘가 허락되지 않았음이 첨가된다. 그리고 모세가 가졌던 지도자의 사명이 여호수아에게 전수된 사실과 아울러 그 시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던 모세에 대한 칭송의 글이 첨가되고 있다.			
생각해보기					
1		모세의 죽음 (1)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 모세는 모압 평지 느보산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알려지지 않은 곳에 장사 됨 (2) 모세는 느보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하고 아름다운 기업을 기대하며 최후를 맞이했을 것 (3) 오직 한번만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른 적이 없었던 모세는 모든 직임을 마치고 하나님의 품에 안김 (4) 사랑과 수고로 일평생 헌신했던 모세처럼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지도자들이 되자.			
핵심 단어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니라 -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장사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유 1:9은 이러한 사실의 근거가 된다. 즉 하나님께서는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어 모세의 시신을 인간이 알지 못하는 곳에 장사하도록 명하셨던 것 같다. 그 이유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무덤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을지도 모를 위험성 때문이었을 것이다(Calvin, Stanley). 한편 혹자는 모세가 엘리야와 더불어 변화산상에 나타난 사실에 의거하여 모세가 부활, 에녹과 엘리야처럼 승천했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Matthew Henry).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매일 성경 강독		모세의 마지막 사역들	날짜 : 9월 19일
찬양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 (찬송가 242장/통일 찬송가 233장)		
통독	신명기 31장		
본문 내용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 명령을 각성시킴과 함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가나안 정복에 성공할 것이라는 격려를 남겼음이 보도된다.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 입성 이후 매 칠 년 끝 해, 곧 초막절에 율법을 낭송하고, 또 그 후손들로 하여금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도록 만들라는 지시를 남겼음이 기록되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한 책을 언약궤 옆에 보전 시킨 사실과 여호와께서 임종이 가까운 모세와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다음 장에 기록된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생각해보기			
1	가나안 정복 격려 (1) 모세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느끼고 자신의 주변과 기타 모든 일을 정리함 (2) 그중 자신의 뒤를 이어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에 입성할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와 백성들을 격려함 (3)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2	모세의 최종 사역 (1) 모세가 지금까지 모압 평지에서 백성들에게 강론한 율법을 기록하여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주고 그것을 안식년의 초막절마다 낭독하고 후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함 (2) 지금까지의 권면과 당부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에 들어간 후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하게 될 것을 예언함 (3) 모든 율법을 책에 기록하여 레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궤에 보관하게 함 (4) 마지막 순간까지 백성들을 사랑하고 자기의 임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던 모세의 성실한 자세를 배우자.		
핵심 단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 결단코 가나안 족속을 겁내거나 행여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지 않을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조금도 없음을 강조한 중언법적 표현이다. 그러나 굳이 세분화하면 '두려워하다'에 해당하는 '야레'는 상대방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위압감을 받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놀라다'에 해당하는 '하타트'는 파괴나 패망 따위를 두려워하여 '낙담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40여년 전 그의 정탐꾼 시절에 갈렙과 더불어 가나안 정복을 주장했던 믿음의 용사였다. 따라서 이제는 지도자가 되어 다시금 맞은 가나안 본토 정복 기회를 그는 기필코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와 열망으로 가득차 있었을 것이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찬양	평생에 가는 길 (찬송가 413장/통일 찬송가 470장)
통독	신명기 32장
본문 내용	이 노래의서론 부분으로서 여호와와 말씀의 본질과 그 분의 공의의 속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비가 되시며 온갖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이 지적되어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 인해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교만해짐으로 진노를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패역한 이스라엘을 대적들을 통해 징계하실 때 이 대적들이 자만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또 그것이 여호와와 징벌이 아니라 자신들의 수단이 높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교만할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들도 징벌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율법에 대한 순종을 재차 권면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의 노래에 대한 적절한 보충 설명 또는 결론이라 볼 수 있다.
생각해보기	
1	모세의 유언노래 (1) 하나님의 고귀하신 품격과 이스라엘의 패역한 성격(1-6) (2)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백성들의 배은 망덕(7-18) (3) 이스라엘의 배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19-25) 및 이스라엘의 회복(26-43) (5) 백성들은 모세의 노래를 반복하며 부름으로 자신들이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방지하고 범죄 하여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다 할지라도 속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됨
핵심 단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 이스라엘의 역사는 거듭되는 인간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로 점철된 사랑과 긍휼의 역사였다. 이는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거듭 하나님께 죄악만을 쌓던 이스라엘의 패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으신 사건만을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오고 오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죄악의 길에 빠질 때 이러한 그들의 과거 역사를 경허한 마음으로 회고함으로써 진정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사실 과거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갖가지 은혜를 오늘에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성도가 항상 정도를 걸으며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 드릴 수 있는 영원한 생의 찬송 제목이 된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매일 성경 강독		12지파에 대한 모세의 유언	날짜 : 9월 21일
찬양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찬송가 252장/통일 찬송가 184장)		
통독	신명기 33장		
본문 내용	먼저 서론에는 이하 선포된 축복 예언의 궁극적 기원이 하나님임을 먼저 밝힌다. 그리고 본론 부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각각 구체적인 축복이 주어진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끝으로 복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를 찬양함과 동시에 하나님으로 모시는 이스라엘의 행복을 노래하고 있다.		
생각해보기			
1	모세의 축복예언 (1)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 최후를 맞이하기 전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축복을 선포함 (2) 각지파별 축복내용: ①르우벤-종족보존의 축복 ②유다-통치권의 축복 ③레위-영적 지도자의 축복 ④베냐민-안전한 보호의 축복 ⑤요셉-물질적 축복 ⑥스불론-진취적인 무역업의 축복 ⑦잇사갈-평온한 농경생활의 축복 ⑧갓-광대한 영토의 축복 ⑨단-계략과 용맹의 축복 ⑩납달리-풍요의 축복 ⑪아셀-기름진 옥토의 축복 ⑫시므온-빠짐? (3) 성도들은 세상적 조건이 아니라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진정 행복한 자들인 것이다.		
핵심 단어	하나님의 사람 모세 - 이 표현은 모세의 위대성을 말해 줄 뿐 아니라, 이하 모세에 의해서 선포되는 축복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선포되는 것임을 시사해 준다. 한편 이 '하나님의 사람'(man of God)이란 칭호는 구약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특별히 하나님의 사자로 고용된 자를 가리킬 때 사용되었다. 따라서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에게도 이러한 수식어가 붙여졌을 뿐만 아니라, 다윗, 사무엘등 특별한 하나님의 종들에서도 역시 붙여졌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 칭호가 어느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소유된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게 되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